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기도에 대한 교훈

[딤후 2:1-2]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禱告)**와 감사를 하되 **입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여기에서 앞장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씀에 연결되는 것 같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기도의 여러 측면들을 표현한다. 특히 ‘도고’라는 원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뜻을 가진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즉 오늘날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 등을 위해,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바른 직무 수행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기도의 결과로, 우리는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고 하셨다(렘 29:7). 사람이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경제만 성장하면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경건과 도덕성이 중요하다.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고 죄짓음 받고 구원 얻어 새 사람이 될 때, 그들을 통해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정치, 의롭고 선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때 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3-4절] [이러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히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것임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히고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

이다. 구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신다. 사람이 외모로 남을 판단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판단하시되, 그가 운데서 그의 주권적 긍휼에 따라 택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은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를 증거한다. 에스겔 33:11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아니다. 사람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제한적이다. 그는 만세 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 그 선택된 수는 확실하고 고정되어 있고 불변적이다. 그는 그들만 구원하기를 뜻하시며 또 그들만 구원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6:39에 보면,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5절] [이러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이심이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진리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밝히 계시된 진리이다(출 20:3; 신 6:4; 사 43:10-11; 44:24; 46:9; 고전 8:6; 엡 4:6). 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뿐이시다. 주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요 14:6), 또 사도 베드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하였다(행 4:12).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贖錢)**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증거될 것이었느니라)

래.

‘속전(贖錢)이라는 원어(안티퀴트론)는 ‘대속물’과 같은 뜻으로 죄값을 의미한다.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는 원문은 ‘정한 때에 증거될 것이었다’라는 뜻이다. 그 정한 때는 예수께서 오시는 때 곧 신약시대를 가리킨다. 구약시대에는 이 사실이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암시적으로 증거되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실체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실제로 지불하셨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贖錢)으로 주셨다는 표현에 대해,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또 예수께서는 택한 자들의 죄값만 지불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속전(贖錢)으로 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성경의 명확한 진리들과 충돌되는 생각이다. 성경은 선택과 예정의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기 때문이다(요 6:39, 44; 롬 9:10-18; 엡 1:4-5, 11). 선택의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제한성을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택한 자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

또 예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면, 이제 악인들을 위한 지옥 형벌이 남아 있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결국 다 구원 얻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성경 진리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주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서 영생에 이를 자들이 적으며,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7:13-14).

그러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贖錢)으로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은 대략적, 제한적 의미로 본다. 우리의 일상적 표현에서 ‘모든’은 항상 완전한 의미에서 ‘모든’이 아니라, 대략적, 제한적 의미의 ‘모든’일 경우가 많다. 예배가 끝난 후 교우들이 돌아가고 몇 명이 남았을 때, 우리는 다 돌아갔다고 표현한다. 또 물병에 물이 조금 남았을 때 우리는 물을 다 마셨다고 표현한다. 디모데전후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사용한 ‘모든’이라는 말은 완전한 의미가 아니고 대략적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1의 ‘모든 사람’도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 어렵다. 4절의 ‘모든 사람’도 대략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4:15이나 5:20과 디모데후서 1:15의 ‘모든 사람’도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대략적, 제한적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속전(贖錢)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 오직 그들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속전(贖錢)이 되셨다는 복음 진리를 위하여라는 뜻이라고 본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진리이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 전파하는 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 ‘전파하는 자’라는 말은 선포자, 설교자라는 뜻이다. 그는 특히 이방인들을 위해 이 진리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죄를 품고 기도하면(사 1:15; 59:2)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또 우리는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 국회의원들과 법관들과 온 백성을 위해, 또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얻기를 원하신다(4절). 이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이다. 그러나 그는 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한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다. 5절,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 얻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속전(贖錢)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죄인들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

주이시다.

셋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1절). 우리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모든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과 온 백성을 위해 또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날들이 길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들도 말씀하셨다. 다섯 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자녀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공경하는 것은 사람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것이다. 이 계명에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아메카)[네 날들이 길리라”는 약속이 첨가되어 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長壽)의 복을 누릴 것이다.

부모를 공경함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며 그것은 사회 질서의 기본이다. ‘부모’는 이웃 어른들, 학교 선생님들, 직장 상사들, 교회 장로들과 국가 통치자들을 대표한다. 레위기 19:32, “너는 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에베소서 6:5, “종들이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베드로전서 2:17, “왕을 공경하라.” 디모데전서 5: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웃 어른들을 공경하고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직장 상사들을 존중하고 교회 장로들과 국가 통치자들을 존중할 것이다.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당한 사형 외에 사적인 감정으로 남을 죽이는 것을 금한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큰 악이며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창 9:6).

생명은 귀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불멸적인 영혼의 존재를 내포한다. 더욱이, 육신의 생명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이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

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마 16:26). 살인은 미움과 욕심에서 나온다. 미움은 살인으로 나타난다. 요한일서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의 목숨을 죽인다.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순결성과 정조(貞操)를 존중하라는 것이다. 남녀의 성관계는 결혼 관계에서만 허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질서가 깨어지고 문란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혼전 관계, 혼외 관계, 동성 관계, 매춘(賣春), 짐승과의 관계 등은 다 음란한 일이다. 또 이런 일들을 조장하는 글, 그림, 인터넷 동영상, 영화 등은 다 죄악된다. 그것들을 만들거나 유포하거나 그런 일에 종사하거나 그런 일로 돈을 버는 모든 것이 다 죄악되며 그런 것들을 보는 것, 듣는 것도 죄악된다.

마지막 때는 도덕이 해이하고 음란 풍조가 많아지고 젊은이들의 남녀관계가 문란해질 것이다. 오늘날이 그런 것 같다. T.V.나 인터넷 등이 음란 풍조의 주된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풍조를 조심해야 한다.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풍조를 배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고 믿음을 잃고 멸망케 될 것이다.

[15절]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여덟 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침해하지 말라는 뜻을 포함한다. 남의 소유물을 강제로 빼앗는 강탈과 강도 짓과 토색(討索)은 죄악이다. 강압적 방식으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생각도 바르지 못하고 선한 생각도 아니다. 자유 경쟁에 의한 이익의 추구는 기본적으로 성경적이다. 가난은 빈번히 게으름에서 온다. 성경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한다(잠 10:4). 또 성경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교훈한다(엡 4:28). 부(富)의 재분배는 좋은 이상(理想)이긴 하지만 강압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혁명을 통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공산주의는 많은 사람을 죽인 실패한, 악마적 이념이며 성경은 결코 그런 사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국가에서 부(富)의 분배는 단지 법 제정에 의한

세금 징수로써만 점진적으로 행할 수 있을 뿐이다.

[16절]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이의 명예를 존중하라는 뜻을 내포한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다(요 8:44). 거짓말은 지옥 갈 죄악이며 천국에 못 들어갈 죄악이다. 요한계시록 21:8,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기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요한계시록 22:15,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에베소서 4:25는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각 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교훈한다.

[17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열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집뿐 아니라, 그의 아내나 그의 종이나 가축들이나 그의 모든 소유도 탐내지 말아야 한다. 탐심과 욕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이다. 야고보서 1:15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말한다. 탐심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의 원인이 된다. 탐심은 우상숭배이다(골 3:5). 현대인의 대표적 우상은 돈이다. 돈을 탐하는 자는 돈의 종이 된 자이다. 그러므로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무서운 죄악, 곧 우상숭배의 악이다.

[18-21절]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든 백성은 우뢰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고 그것을 볼 때 떨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 심히 두려워했다. 모세는 백성을 안심시키며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엄위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들을 죽이려 하심이 아니고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그는 백성을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

[22-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 외에](NASB, NIV) 으로는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土壇)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 . .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순수한 경건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만 순수하게 섬겨야 하고 우상들을 경계하여야 한다. ‘토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동안 쉽게 만들고 쉽게 부술 수 있는 흙으로 만든 단이다. 이 명령에서, 하나님께서는 허식보다 내면적 거룩이 중요함을 보이셨다. 그들이 속죄와 헌신과 교제를 상징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토단(土壇) 위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을 돌로 쌓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일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게 하셨다. 또 제사장은 층계로 단에 올라가 하체가 드러나게 하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단정함을 명하셨다.

십계명 후반부의 계명들의 뜻도 명료하다. 첫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우리는 부모님뿐 아니라, 이웃 어른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직장 상급자들이나 교회 장로들과 국가 통치자들도 존중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실제적 살인뿐 아니라, 살인의 원인이 될 마음의 미움과 적개심이나 욕심도 버려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결혼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행위가 죄임을 알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음란한 풍조와 인터넷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도적질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남의 것에 손대지 말고 열심히 일해 먹고살고 도리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째로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진실해야 하고 진실한 말만을 해야 한다.

여섯째로 우리는 탐내지 말아야 한다.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이며 그 자체가 우상숭배의 죄악이다. 우리는 모든 탐심을 버려야 한다.